PD수첩發 조계종 의혹 해명 '시동'

교권자주위원회 52인 구성… 위원장 밀운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한 조계종 의혹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관련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 총 52인을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前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호선을 통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원로의원 종하 스님 ·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우 스님 · 중진 대표 도법 스님(화쟁위원장)과 지환 스님(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6인이 선임됐다. 간사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맡았다.

회의서는 '교권'과 '혁신' 중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현재 위원회가 종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부분이 더 담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불신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며 종령에 혁신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지환 스님 역시 "위원회가 종도들에게 신망 받아야 한다. 불신 당한다면 무엇을 하든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위원회 명칭 앞에 교권보다 혁신을 먼저 놓아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이에 종회의원 범해 스님은 "혁신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권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당초 구성키로 했던 소위원회인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와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외에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함께 두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종단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인사들도 위원으로 위촉키로 뜻을 모으고, 위원회가 논의해 성안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령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종하 스님 등 부위원장 6인
제도혁신소위원회 추가 구성
3개 소위원회 나눠 논의 예정
종단 비판 목소리도 듣기로

이와 관련해 과거 종단쇄신위원회서 활동한 도법 스님은 "지난 집행부에서 쇄신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안들을 성안했다. 하지만 결과는 자료집 하나로 끝났다. 당시 성안한 내용이 시행됐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의 내용을 실천할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철을 밟게 된다. 소모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교권 자주 및 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6월 11일 첫 회의에 참석해 삼귀의례를 하는 모습.

밀운 스님 "MBC에 고마워해야"

위원회는 휴회 후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는 위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15인,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는 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13인,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한 1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명예원로 · 원로의원인 도문 · 원명 · 혜승 · 월주 · 월탄 · 원경 스님을 추천했다. 또한 전체위원회의 업무 전담부서를 총무부에서 백년대계본부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외에 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가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전체위원장 밀운 스님은 "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MBC PD수첩으로 인해 종단에 갈등이 생겼지만 오히려 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비난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친자의혹을 받고 있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회의에 앞서 "모든 상황이 저의 부덕으로 인해 발생했다.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저와 관련된 사안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면서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규명해주시고, 종단의 미래를 혁신하는 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향후 종단 운영방향 등을 고심하며 총무원장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에는 명예원로,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선원 · 교육 · 율원 대표, 중진스님, 비구니 대표, 총무원 부실장, 재가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계종 승가교육 체제 개편 본격화되나?

교육위원회 오는 7월 12일 교육종책 세미나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조정
학제 기간 변경 등 논의 예정

출가자 감소로 인해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본교육기관 축소 및 학인 정원 조정 등 승가교육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승가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양관 스님(동화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교수),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조계종 내외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에 둔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 학제기간 조정과 교육방법 개선 등이 중점 토의될 전망이다.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 교육 시스템 개선은 출가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 120명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가자가 급감하다보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인 수도 줄어들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으로 분류되며 총 18곳이다. 이중 상당수의 승가대학의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을 향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현응 스님은 "출가자가 20년 전에 비해 1/3으로 준 현실에서 교육기관 숫자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와 예산 상 문제가 많다. 교육기관 중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책세미나는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 조계종 승가교육 체제 개편의 시발점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인 수 감소에 따라 교육기관 수 등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승가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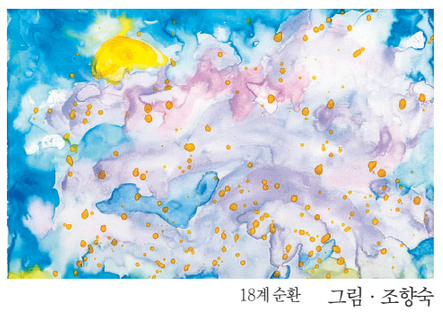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8界 6근 6경 6식 만나 '세계 生起'

18계(界)는 지난주에 공부한 12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6근(根)이 6경(境)을 만나면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의 6식(識)이 일어납니다. 6근, 6경, 6식을 합해서 18계라고 하는데, 인식을 성립시키는 18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내적 인식기관 6근은 눈의 요소(眼界) · 귀의 요소(耳界) · 코의 요소(鼻界) · 혀의 요소(舌界) · 몸의 요소(身界) · 마음의 요소(意界)입니다.

외적 인식 대상 6경은 색계(色界) · 성계(聲界) · 향계(香界) · 미계(味界) · 촉계(觸界) · 법계(法界)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 6식은 안식계(眼識界) · 이식계(耳識界) · 비식계(鼻識界) · 설식계(舌識界) · 신식계(身識界) · 의식계(意識界)입니다.


18계 순환 그림 · 조향숙

두손 마주쳐 소리나듯
根과 境에 의존 識 생겨
감각기능 제어못하면 '苦'

눈을 통해서 색이나 형상을 보고 식별하는 인식작용이 안식입니다. 귀 · 코 · 혀 · 몸 등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 소리를 내듯 눈과 색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아함경 手聲喩經〉에서는 손뼉 치는 소리에 비유, 근(根)과 경(境)에 의존(인연)하여 식(識)이 생기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일체법을 오온, 12처, 18계로 분류했는데 이를 삼과설(三科說)이라고 합니다.

오온은 나로, 12처와 18계는 세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과설은 근기에 따른 설법인데, 오온은 마음을 잘 모르지만 짧은 법문으로 제도 가능한 상근기를 위한 설법입니다.

12처는 색법 즉 물질적 현상을 잘 모르는 중근기를 위한 설법이고, 18계는 마음과 물질에 다 어리석어 집착이 강한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감각기능(根)과 감각대상(境) 그리고 감각 분별식(識)의 만남을 촉(觸)이라고 합니다. 촉에 의존해서 고(苦), 락(樂), 불고불락(不苦不樂)의 느낌(受 · 감각)이 생깁니다.

이러한 감수작용은 욕망(갈애)을 발생시켜 즐거운 감각에 집착(取)하게 됩니다.

중생이 감각에 집착하는 것은 탐진치라는 악의 뿌리 때문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즐거운 대상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즐거운 말을 듣기 좋아하고, 향기로운 냄새와 맛에 탐닉하며 즐거운 감촉을 느끼려 합니다. 회오리바람처럼 일었던 미투운동에서 감각적 쾌락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꽃(쾌락)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가듯이"

*18계는 세계의 생기(生起) 과정을 12연기와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창조해가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체법에서 존재의 무상과 무아를 보면 감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탐진치를 멀리할때 그 청정함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나타나 행복이 피어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보이는 세계가 다 청정해집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약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원기둥 7.5Φ×29cm
돈타레 5.6Φ×26cm
밀대 4.7Φ×24.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돈타레 5.6Φ×27cm
밀대 4.7Φ×25cm
연봉 원기둥 7.0Φ×34cm
돈타레 5.6Φ×27cm
밀대 4.7Φ×25cm
6.5Φ×30cm
5.9Φ×18cm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